



# 대한민국 대표 스낵 '새우깡'

- 농심(주) 자료제공 -

새우의 고소한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스낵, '새우깡'은

1971년부터 발매되기 시작해 30여년 동안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쇠장수 스낵 제품이다. 뇌신경 발달과 기억력 증진작용, 치매증  
예방 및 시력 향상 효과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DHA 첨가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맞는 영양간식 새우깡. 본지에서는 새우깡  
의 패키지 디자인 변천사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1. 30년 역사, 새우깡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가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고, 가난이 가족같던 옛날 옛적. 우리 나라의 음식이름에는 깡밥, 깡보리밥 등에서 나온 '깡'은 순박한 이미지를 대표하는 명사였다.

새우깡 개발 당시 농심(주)의 신춘호 회장은 어린 딸이 아리랑을 '아리깡, 아리깡..'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새우와 깡을 결합하여 '새우깡'이라고 이름짓게 된다. 새우깡이 히트한 이후 감자깡, 고구마깡, 양파깡 등의 '깡' 시리즈의 제품이 출시될 정도로 '깡'이 스낵을 대표하는 말이 됐다.

30여년 역사의 새우깡, 그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새우깡의 패키지 디자인은 그동안 변화의 역사와 시대

에 맞추어 변화하고 발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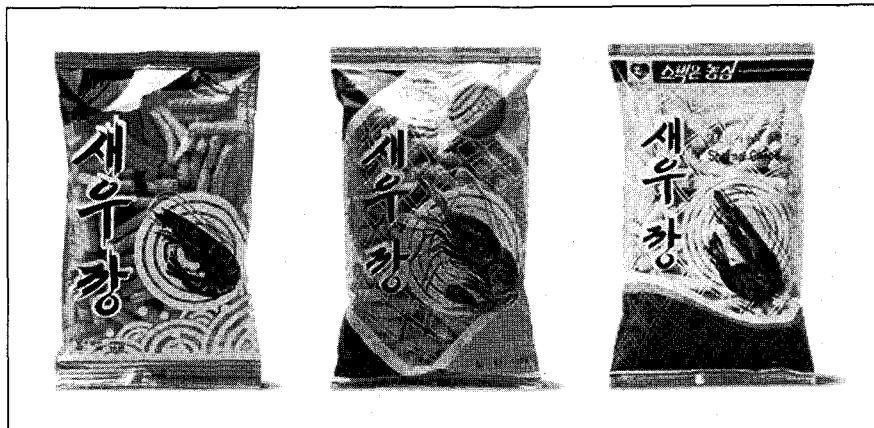
새우깡의 역사는 새우깡이 갖는 본질, 즉 새우깡만의 독특한 이미지와 신뢰감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움을 잃지 않게 하는 것에 큰 중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 투명패키지 새우깡

1971년 새우깡이 처음 시판된 이후, 당시 디자인은 새우깡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시판 이후 80년대 초반까지는 투명 패키지에 격자 무늬로 새우깡 패키지가 이용됐다.

이는 바다에서 그물로 직접 잡아올린 새우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형상화였는데, 새우의 기다란 수염을 연상시키는 로고타입과 빨간 새우 그림을 그려



◀ 시판 초기부터 70년대 투명 패키지 형태의 새우깡

넣으며 그물 모양의 패턴 안으로는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 3. 알루미늄 증착 재질 도입

새우깡은 포장기술의 발달로 80년대 가장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89년 개발된 '원조 새우깡'. 굳이 원조라 이름 붙였던 이유는 당시 새우깡의 판매시장을 노린 회사의 모방제품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인쇄기술의 발달로 디테일을 살릴 수 있게 되자 어색했던 새우그림이 생생한 새우 사진으로 대체되면서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을 불투명 패키지로 연출했다. 그러나 투명에서 불투명으로 바꾼 뒤 소비자



▲ 80년대 다양한 포장변천을 이룬 새우깡



▲ 매운 맛을 첨가해 새롭게 시판한 '매운 새우깡'

들이 투명 포장이 아닌 것은 다 아류제품으로 인식 해서 불투명 포장의 농심 새우깡도 아류취급을 받았 으나 한 달만에 매출이 정상궤도로 돌아왔다.

불투명 재질이 도입됨에 따라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알루미늄 증착 재질을 사용했으며 새우깡에 사용된 새우가 산지인 '법성포' 등지에서 공급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새우잡이 사진과 생새우 사진을 넣기 시작하기도 했다.

#### 4. 새우깡의 다양화

1990년 이후 새우깡은 80년대 식품 트렌드였던 DHA를 첨가하게 된다.

또한 기동이 되는 브랜드 이미지는 그대로 두고 세분화에 성공해야하는 전략을 토대로 '매운 새우깡'을 발매하게 된다.

새우깡에 한국인이 선호하는 매운맛을 첨가하여 만든 매운 새우깡은 초소형 포장제품까지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휴대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새우깡 인기에 힘입어 새우깡을 대형



▲ 새우깡의 대형화 '노래방 새우깡'

포장해 만든 '노래방 새우깡'에는 흡습방지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팩실(pack seal)을 부착, 재개봉 후 먹을 경우 신선한 새우깡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했다.

#### 5. 독보적 오리지널리티 확보

농심(주) 새우깡은 독보적인 오리지널리티를 확 보하고 무한 디자인 감각을 부여하는데 주안점을 두 고 변화해 왔다.

갓난아이에게 어머니가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새우깡의 절대적인 신뢰는 한 두해에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모습이 바뀌고 성장해온 새우깡은 앞으로도 새롭게 변화해 갈 것이다. [ko]

광고 및 정기구독문의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 835-9041~5